



#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제6호 · 1999년 10월 25일 발행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1-1

□ 시에의 초대 □

## 영혼의 무지개

김태규  
(37회 · 목사)

물끼있는 눈매가 교와  
얼룩무늬 사슴처럼 마음이 교와  
너를 사랑한다

군중 속에 숨어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너를  
손 잡을 순 없지만  
네 숨결을 듣는다

어찌다 마주치면  
다소곳이 지나가는 네 입가엔  
옅은 웃음이 피고  
사랑하기에 오히려 외면하는 너에게서  
나를 본다

사람들에게 활쫓고 찢긴  
내 마음이사 치유할 순 없지만  
부드러운 손길처럼 짜릿한  
눈빛으로 하여  
네 무릎을 베개삼고 잠들고 싶다

밭치에 있으면서 마냥 멀어보이는  
너는,  
내 영혼의 무지개  
나를 너를 사랑한다.



— 시집 『영혼의 무지개』에서

□ 同門斷想 1 □

## 철학과 가상 현실

이 주 현

아주 현실적인 얘기 두 가지에 대해 말하고 싶다. 현실적이라고 하면 영어로 reality를 말하겠지만, 내가 말하는 현실은 virtual reality이다. 버추얼이 어째서 현실적이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철지난 인문학도라고 해야 할거다.

국가간 영토는 고착되었고, 우주는 아직 멀리 있다. 우리 나라도 소형 인공위성 우리별 1, 2, 3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지만, 그래도 생각의 영역을 우주적으로 확장시키기엔 아직 이른 시기이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게 바로 사이버 스페이스이다.

첫 번째로 사이버 스페이스는 비 물리적 공간이다. 그래서 무한대의 영역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다가는 좋은 길목을 다 놓치게 된다.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는 흔히 외우기 좋은 용어들이 사용되기 마련인데, 사이버 스페이스의 형편도 마찬가지. 좋은 기호와 이미지를 먼저 차지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대학 철학과가 명실상부한 철학의 중심지가 되려면 이 사이버 스페이스의 중요지점을 차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 말은 곧 사이버 세상 속에서 통용되는 중요한 기호, 언어 및 용어와 이미지를 먼저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바로 사이버 속의 '가치관'에 대한 얘기. 요즘 젊은이들은 기계를 통하여 대화한다. 그것은 곧 기계가 단방향으로 사람에게 편리를 강제하던 시대가 지나고, 기계를 이용해 나와 네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걸 두고 쌍방향(인터랙티브)이라고 말한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을 단방향 매체로 본다면, PC통신과 인터넷을 쌍방향 매체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개개인이 모두 정치에 참여하는 희랍시대의 민주주의까지도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세상이 예견되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미국 아기들은 요즘 '퍼비'라는 올빼미 로봇 인형을 갖고 논다. 이 인형은 자기 언어를 구사하여 아기들과 대화하고 놀아주면서 차츰 인간의 언어를 배운다. 바야흐로 퍼비와 사권 아기들이 성장하면 기계를 대화의 상대, 존재적 상대로 인정하는 '가치관'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사이버 세계는 무한대의 비점유 영토가 많은 만큼 아직 일관된 가치관이나 사상이 없다. 현실 세계의 준칙을 활용하는 정도라고나 할까? 철학의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다.

원컨대, 우리 대학이 철학계에서 즐겨 쓰는 용어를 사이버 속에서 가장 먼저 혹은 가장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사이버 세상의 철학에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들려주고 또 들어준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미 많은 대학의 철학과들이 이런 시도를 벌이고 있다. 우리도 하루 빨리 이 대열에

합류해야 할 것이다. 우선 도메인 네임부터 <http://philosophy.soongsil.ac.kr> (이런 것도 아직 없는 걸로 알지만)로 만들면 되겠다.

더 나아가서 [www.philosophy.net](http://www.philosophy.net) 이나 [www.philosophy.ac.kr](http://www.philosophy.ac.kr) 등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훨씬 더 많아 질 것이다. 그런 상징성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대학 신문은 제호가 '송실대학신문' 이지만 서울대학은 그냥 '대학신문'이란 데서 찾을 수 있겠다.

사이버 속의 인문학 세상은 아직까지 1등이 없다. 우리 대학 철학과가 먼저 앞서 나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필자: 65회 · 한국과학기술원 파기원신문사 간사)

\* \* \*

◇ 저서 출판을 축하합니다 ◇

趙 要 翰 지음  
**韓國美의 照明**  
 (열 화 당 펴냄)

한국미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서 출발하는 이 책은 '무기교의 기교'(교유섭), '자연주의'(김원룡) 등 한국미의 본질에 대한 선학(先學)들의 연구성과를 비균제성(非均齊性)과 자연순응성으로 받아안으면서,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이 한국인의 육체와 정신에 배어 있는 무교적(巫敎的)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국미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것을 지배하는 흐름을 포착해낸 한 뛰어난 미학자의 예리한 사색을 읽을 수 있다.

저자 특유의, 동서양 미학을 넘나드는 해박함과 우리 예술에 대한 따사로운 시선, 미의식을 읽어내는 빼어난 눈썰미가 돋보인다. 80여 컷에 이르는 도판과 해설이 이해를 돕는다. (2만원)

이 윤 일 지음  
**논리로 생각하기 논리로 말하기**  
 (도서출판 씨 엘 펴냄)

이 책은 전혀 새로운 유형의 논리학 학습서이며 교재이다. 첫째로, 이 책은 논리학 책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다. 대개의 경우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수준이 낮아지게 마련이지만, 이 책은 그 두 가지를 함께 실현한 드문 경우에 속한다.

또한 이 책은 논리학이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지혜를 줄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저자 **이윤일** 교수(54회 · 관동대학교)의 저서로는 이밖에도 『의미, 진리와 세계』(자유사상사, 1992)가 있으며, 역서로는 『철학적 논리학 입문』(A. C. 그렐링)과 『과인과 분석철학』(로마노스) 등이 있다. (1만2천원)

## □ 同門斷想 2 □

## 우리가 지녀야 할 또 다른 시선

김 영

내가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당시 나에게 있어 대학은 자유의 광장을 향해 질주할 수 있는 꿈을 꾸게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의 대학 생활을 돌이켜 보면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학교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기억들로 인해 나는 자유를 꿈꾸기보다는 회색 빛 하늘을 보고 한숨 짓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최근 대학의 분위기를 보면 10년 전 내가 대학을 다닐 때와 너무나도 많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정보의 혜택, 여가 활동의 다양함,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바로 요즘 대학생들이 젊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중 가장 커다란 변화는 컴퓨터의 보편화로 인해 더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의 활용 면에서 커다란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88년 내가 처음 대학을 입학해 학교를 다닐 때 만해도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 등을 손으로 일일이 써야만 했고 간혹 컴퓨터로 리포트를 작성해 제출하는 친구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지금은 컴퓨터가 우리 생활에 보편화되었고 정보의 바다를 마음껏 항해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해주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를 이용해 리포트 등을 작성하거나 각종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컴퓨터라는 문명의 이기 때문에 손쉽게 많은 세계를 접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은 최근 대학생들이 우리 세대에 누리지 못했던 행운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가 장애인복지신문사라는 곳에 근무하면서 근 4년 동안 나의 요즘 대학생들에 대한 이 부러움은 장애인들이 처한 교육 현실을 접하면서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장애인복지신문사에 처음 근무했을 때가 96년인데 가장 먼저 맡은 분야는 교육으로 그 덕분에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 장애를 가진 대학생 등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특히 장애인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저 학생들이 강의실을 향해 있는 수많은 계단을 어떻게 옮겨 다니면서 강의를 듣고,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듣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됐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에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주위에 있었지만 그들의 학교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무척 궁금했고 그들의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보조 수단이 없어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해 이동을 해야만 하는 지체장애 학생들은 넓은 캠퍼스에 분산되어 있는 강의실을

옮겨 다니다 강의 시간에 늦기 일쑤고 고층에 있는 강의실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번 다른 학생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 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겪는 학업의 어려움은 비단 건물내의 경사로, 승강기 등 이동접근권의 문제만은 아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수화 통역사가 없어 강의 시간의 내용을 들을 수 없어 80% 이상이 강의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교수가 강의내용을 판서할 경우 그것을 대신 필기해주고 그것을 점역화하거나 음성 녹음해 줄 자원활동자들이 없어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95년부터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입학정원 의 로 장애를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로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전형을 실시한지 5년이 되어가지만 이런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은 말만 특별전형을 실시할 뿐이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말로는 많은 대학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대학의 문을 열어줬다고 하지만 진정 이들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생으로서 누려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비장애인 학생들이 그들의 젊음을 누리고 미래에 대해 준비해 가는 시간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강의를 제대로 듣기 위해 강의실 앞에 놓인 수 없이 많은 계단과 싸워야 하고 궁색하게 자원활동자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가끔 신문지상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네, 근육병 환자인데 검정 교시에 붙었네, 절단장애인으로 대륙횡단을 했네 하는 등의 영웅화된 장애인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조금만 이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다면 더 이상 장애인이기 때문에 영웅으로서의 시선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고 장애인 도 일상인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 65회 · 장애인신문사 기자)

● ● ● ●  
원 고 모 집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의 소식지는 동문 여러분의  
 관심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육고를 기다립니다.  
 - 종류: 은사에 대한 회고, 재학 시절의 일화, 모교 발전을 위한 제언,  
 동문들의 동정 등 제한 없음.  
 - 제출: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1-1  
 송실대학교 철학과 사무실  
 tel.: (02) 820-0370 / fax: (02) 824-4382  
 e-mail address: philosophy@saint.soongsil.ac.kr

◆ 나의 학위논문 1 ◆

미국 뉴욕주립대학교(버팔로), 1999

## 정치 판단과 의사소통적 합리성

— 한나 아렌트와 위르겐 하버마스의 정치철학 연구 —

김 선 욱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치 철학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는 정치 사상이라면 누구나 문제삼고 대답을 시도한 질문들이다. 아렌트 사상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정치판단이론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그녀의 대답에 바탕한 것이다. 정치에 대한 그녀의 이해는 정치와 윤리의 관계나 정치와 다양성(difference)의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반성을 가능하게 한다.

정치란 서로 다른 개인이 자유로운 자발적인 행위를 통하여 공적 영역에서 자신을 경쟁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을 언어를 통해 조정해 가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정치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복수성(plurality)이다. 이러한 정치 영역에는 철학적 방식의 접근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아렌트는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적 방식이란, 원리 또는 합리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식이다. 다양성은 보편적인 원리나 합리성을 중심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철학적 방법으로 정치 현상에 접근할 때 정치의 본질을 놓칠 뿐 아니라 정치의 특성을 파괴하는 결과까지 낳게 된다. 이러한 아렌트의 정치 이해와 정치에 대한 철학적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은 플라톤 이래의 정치철학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의미한다.

정치의 본래적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아렌트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택한다. 희랍사회에서는 이 구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희랍 이후에 와서는 이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나아가 희랍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사적인 것의 공적 영역에의 등장이다. 이를 쉽게 말하면, 원래 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이 공적인 관심을 획득하게 된 현상을 말한다.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사적인 것을 아렌트는 사회적인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후의 정치 철학은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혼돈해 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혼돈에 기여해 왔고,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정치철학의 역할로 간주되었다. 마치 오늘날 정부의 역할이 거대한 가족으로서의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라고 본다던가, 경제문제의 해결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다. 아렌트는 현대 정치의 문제가 바로 정치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혼돈에 있으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 걸 맞는 철학적 방법이 정치적 영역에 그릇 적용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아렌트는, 원리를 포착하고 이를 적용하려는 이성적, 또는 철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 대한 도덕 철학적 접근도 비판한다. 이 때문에 아렌트는 칸트의 제2비판서가 아닌 제3비판서에서 자신의 정치 사상의 개념적 도구들을 발견하게 된다. 칸트의 제2비판

서는 복수로서의 인간이 아닌 단수로서의 인간의 반성을 통해 도덕 원리와 인간 생활의 원리를 파악하기 때문에, 복수의 인간이 모여 이루어지는 정치에 대한 적절한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상호 주관적인 성격을 가진 취미판단과 흡사한 정치 판단은 인간의 서로 다른 모습을 그 자체로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기제라고 아렌트는 생각한다. 무관심성을 기조로 자신의 마음을 확장하여 세계 관찰자적인 관점으로까지 나아가는 가능성을 인간성에 대한 신뢰에 바탕하여 그녀는 보고 있다.

아렌트의 정치에 대한 이해는 하버마스의 정치철학과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차이가 있다. 먼저 정치에 있어서 언어의 역할에 양자는 모두 주목한다. 언어를 통해 인간의 행위를 조절하는 것 (coordination of action through speech)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모두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아렌트는 하버마스처럼 언어가 어떻게 기능 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는다.

하버마스는 그의 형식 화용론을 통하여 언어를 통한 인간의 행위 조절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주려 한다. 전략적 언어사용이 어떻게 의사소통적 언어사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사소통적 언어사용이 왜 원초적인 언어사용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윤리적인 언어사용의 가능성도 이를 통하여 보여 준다. 이러한 언어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정신 기능으로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을 상정한다. 하버마스가 합리성 개념의 사용을 고집하는 점에서 그는 현대적 철학의 전통 안에 있다. 철학적 전통과의 단절을 생각하는 아렌트는 합리성 개념 자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의식 철학적으로 생각된 합리성이 아닌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아렌트의 판단 이론이 하버마스와 어느 정도로 공통적이며 또 다른가하는 것이 의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벨머 (Albrecht Wellmer)와 같은 이는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렌트와 하버마스는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한다. 사실 아렌트의 사상이 소위 '언어적 전회'가 정치철학적으로 유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성숙되었다는 것과, 언어철학적인 용어로 쓰여진 점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사상은 서로 많은 점에서 연결가능 (compatible)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편 인간의 복수성을 최대한으로 인정하려는 아렌트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성 개념을 살리면서 철학을 한 하버마스의 사상과는 달리 차이 (difference)의 문제를 보다 민감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하버마스의 이론의 적용의 근거에 우리의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아렌트의 사상이 하버마스의 정치사상보다 더 큰 포괄성을 가지는 점이 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관점의 병존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다문화성 (multiculturalism)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이점은 정치와 윤리 문제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가능성에서 바로 담화윤리를 이끌어 내면서 보편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윤리적 명령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나 아렌트는 복수성을 전제하면서도 일반적 적용성을 가진 정치적 판단 이론을 전개한다. 종래에 분배를 중심으로 생각되어 온 정의 (正義) 개념이나, 보편적 인간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의무론적인 윤리설과는 다른 방향에서 정치 영역에서의 윤리 문제를 풀어 나가는 아렌트의 판단 (9면으로 계속)

## ◆ 나의 학위논문 2 ◆

영국 글래스고우 대학교, 1999

## 스피노자의 심신 이론

박삼열

스피노자의 심신이론은 질료-형상론, 관념론, 부수 현상론, 유물론, 심신 평행론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아직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의 논문은 이 해석들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스피노자가 진술한 '정신과 신체의 관계'의 명확한 의미를 밝히는데 우선 목적을 두고 있다.

위의 여러 해석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고찰을 통해서 스피노자의 심신 이론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두 가지 전제가 추론된다. 그것은 첫째 스피노자는 정신과 신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며, 둘째 정신과 신체의 실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신 평행론적 해석은 이러한 전제들에 부합되기는 하지만, 유일 실체관에 근거를 둔 스피노자의 심신 이론의 핵심이 되는 심신 동일론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피노자가 자기모순을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스피노자의 심신 이론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스피노자의 심신 이론에서 동일론적인 진술과 평행론적인 진술 모두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위의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된 원인들 중의 하나이다. 질료-형상론, 관념론, 유물론 등의 해석들은 동일론적 진술에 근거를 두고 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인데, 이 해석들은 스피노자의 평행론적 진술을 간과하거나, 부정한다. 반면, 평행론자들은 동일론적 진술을 간과하면서 스피노자의 심신이론을 전통적 의미에서의 평행론 즉 정신과 신체를 두 개의 각각 다른 실체로 인정하는 실제 이원론적 관점의 평행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심신 이론은 그의 동일론적 진술과 평행론적 진술을 모두 함축할 수 있는 이론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해석은 또한 동일론과 평행론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관점인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스피노자의 심신 이론을 고찰하면 우리는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평행론은 그의 동일론에서 파생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스피노자 심신이론의 핵심은 정신과 신체가 동일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동일성의 기반 위에서 스피노자는 평행론을 주장하고 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정신과 신체는 서로 평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대일 대응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정신과 신체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론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없이 평행론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스피노자의 심신 이론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스피노자의 심신이론은 기본적으로 이중 양면설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중 양면설은 정신과 신체의 동일론적 주장과 평행론적 주장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의 심신 동일론과 심신 평행론은 그의 형이상학 이론인 실체 일원론과 속성 이원론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견해는 우리에게 스피노자의 동일론적 진술과 평행론적 진술을 양립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실체 일원론으로부터 우리는 정신과 신체가 하나의 동일한 실체라는 것을 추론해 낼 수 있으며, 속성 이원론 으로부터는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은 동일한 속성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속성이라는 것을 추론해 낼 수가 있다. 따라서 사유하는 실체와 연장된 실체가 각각 다른 속성(사유와 연장) 아래에서 표현된 동일한 실체인 것처럼,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은 각각 다른 속성 아래에서 표현된 동일한 사건이다. 스피노자는 동일론적 주장을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의 관계에 적용시키는 반면, 평행론적 주장을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과 연관지어서 전개시키고 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으로서, 하나의 사건이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 아래에서 한편으로는 정신적 사건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적 사건으로 표현될 뿐이다. 이렇게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이 동일한 사건으로서 한 종류의 사건들만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인과성에 대한 하나의 질서와 연결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은 하나의 사건을 같은 원인들의 질서와 연결에 따라서 각각 정신적 사건으로 또는 물리적 사건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정신적 속성에서의 원인들의 질서와 연결이 물리적 속성에서의 원인들의 질서와 연결과 같다는 속성들 간의 평행한 관계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스피노자의 심신이론은 동일론과 평행론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피노자가 주장한 동일론은 유형 동일론이 아니라 개별자 동일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또한 스피노자의 평행론은 전통적인 실체 평행론이 아니라 개념적 이원론 또는 속성 이원론에서의 평행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속성 평행론은 실체 평행론과는 달리 스피노자의 유일 실체관에 상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심신 이론의 핵심이 되고 있는 심신 동일론과도 조화를 이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스피노자의 심신 이론을 개별자-이중양면설(a token double aspect theory) 또는 평행론적 개별자 동일론(a systematic token identity theory)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스피노자의 심신 이론을 현대심리철학과 비교해서 조명해 보았을 때, 그의 이론은 심신 문제에 대한 현대적 접근들과 일치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에 통찰력과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 60회 · 숭실대학교 강사)

\* \* \*

(7면에서 계속) 이론은, 그녀의 아이히만 비판이나 하이데거 비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인간성과 인간의 정신의 기능, 그리고 그의 공동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아렌트는 인간의 다양성에 끊임없이 주목함으로써, 작금의 여성주의 논쟁이나 동일성 정치이론(identity politics),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논쟁, 정치와 윤리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필자: 55회 · 숭실대학교 강사)

## 동 문 회

### I. 동문 동정

▶**김진경** 동문(30회·중국 연변과학기술대 총장) 지난 10월 11일 모교 환경직기념관에서 열린 개교 102주년 기념식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종운** 동문(35회·목사) 1998년 10월 2일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1주기 추도 예배가 지난 10월 2일 고인이 시무하던 청운교회당에서 있었다. 12월경에는 추모집이 발간될 예정이다.

▶**김태규** 동문(37회·목사) 기독교문인협회(회장 이 탄)가 수여하는 제17회 기독교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은 시집 『영혼의 무지개』(성광문화사, 1998)이며 시상식은 지난 2월 23일 한글회관에서 있었다.

▶**김선태** 동문(38회·실로암안과병원 상임이사 겸 원목실장) 유집 박창원(裕集 朴昌源)선생 추모사업회가 수여하는 제5회 유집상 자원봉사부문 특별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9월 11일 유신학원 대강당에서 있었다.

▶**강형철** 동문(53회·송의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1999년 2월 19일에 있었던 모교 학위수여식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 제목은 '신동엽 시 연구'이다.

▶**김선옥** 동문(55회·대학강사) 1999년 7월 미국 뉴욕주립대학교(버팔로)에서 'Judgement and Communicative Rationality - A Study of Political Philosophy of Hannah Arendt and Jürgen Habermas'라는 제

목의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모교 대학원에서 정치철학 세미나를 담당하고 있다.

▶**박삼열** 동문(60회·대학강사) 1999년 7월 영국 글래스고우 대학교에서 'A Study of the Mind-Body Theory in Spinoza'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모교 철학과에 출강하고 있다.

▶**김승국** 동문(52회·철학박사) 일본에서 연구생활을 마치고 지난 7월 귀국하였다. 그는 그동안 일본 명치학원대학 국제평화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평화학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 II. 동문회 총회

▶**철학과 동문회 정기총회**가 11월 중순 제 3회 **송실철학강좌**와 겸해서 열릴 예정이다. 임원개선이 있게 될 이번 정기총회에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 철 학 과

### I. 교수 동정

▶**최명관** 박사(명예교수) 금년 하반기에 『현실의 구조』라는 제목의 저서를 송실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선 볼 예정이다.

▶**조요한** 박사(명예교수) 열화당에서 펴낸 저서 『한국미의 조명』 발간기념회가 한국미학예술학회 주최로 지난 10월 16일 오후 5시 환기미술관에서 있었다.

▶**김기순** 교수(윤리학) 지난 6월 12일 송실대학교 사회봉사관에서 창립총회를 가

진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학회는 송실윤리학회를 전국 규모의 학회로 확대 개편한 것인데, 창립총회 자리에서는 고범서 박사의 '윤리에서의 도덕적 방법과 정치적 방법'이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으며, 학회지 『기독교 사회윤리』 창간호도 발간하였다.

▶ **한석환** 교수(서양고-중세철학) 1999년 8월 1일자 철학과 학과장(대학원 주임교수 겸임)에 다시 보임되었으며, 인문대학교학부장직도 겸하고 있다. 임기는 2001년 2월 28일까지이다.

## II. 학부 및 대학원 소식

▶ **철학과**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지난 9월 1일 정식으로 개통되었다. 지난봄부터 제작에 착수하여 8월 한달 동안 시험 가동을 거쳐 개통하게 된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philosophy.soongsil.ac.kr>이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또 보완해야 할 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자주 방문해 주시고 격려와 아이디어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 **학부 철학과**는 지난 8월 20일에 있었던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3명의 문학사를 배출하였으며, 현재 재학생 수는 90여명이다.

▶ **대학원 철학과**는 금년 8월 20일에 있었던 학위수여식에서 1명의 문학석사를 배출하였다: 손영실(학위논문: 『레비나스의 윤리적 형이상학에 대한 연구』). 그리고 가을학기에 들어서 박사과정에 4명(유현상, 이용규, 이종원, 최태현)이 진학하여 현재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원생은 모두 18명이다.

▶ **철학과**는 제2회 송실철학강좌를 지난 9월 9일(목) 오후 5시 모교 한경직기념관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강사는 조요한 박사(철학과 명예교수)였으며 주제는 '한국미의 조명'이었다.

▶ 제3회 송실철학강좌는 10월 21일(목) 모교 별관 102호에서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강사로 예정되었던 시인 김지하 선생이 모 단체와의 갈등으로 피신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다. 당일 원근 각지에서 참석차 내방하신 동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런 마음을 전한다. 제3회 송실철학강좌는 다른 강사를 교섭하여 11월에 열린다.

### 주소 업데이트

▶ **여유태** 동문(35회·목사)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석사주공아파트 207동 1504호

▶ **차현재** 동문(46회·영화감독) 경기도 과천시 주공아파트 637동 304호

☎ (02) 501-8768

▶ **최리균** 동문(48회·교교 교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한일타운 대림아파트 140-101

▶ **김승국** 동문(52회·철학박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4동 794-5 (4/2)

☎ (02) 2648-1761

▶ **김선욱** 동문(55회·철학박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0 무지개마을 405동 2405호. ☎ (0342) 713-9444

▶ **박경신** 동문(55회·중학교 교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51-4

☎ (0344) 906-3012

▶ 남재현 동문 (64회)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광주읍 태전리 228 성원아파트 104-1603. ☎ (0347) 763-1112

▶ 허증호 동문 (32회 · 목사) 6410 Kenilworth, AV Riverside. M. D. 20737, U. S. A.

▶ 정남식 동문 (31회) 2613 Southwest 343th St. Federalway, WA 98023, U. S. A. ☎ 253-927-7189

▶ 권영배 동문 (34회 · 목사) 3212 Cuthow AV. #306 Richmond VA 23230, U. S. A. ☎ 804-359-8779

▶ 김국진 동문 (37회 · 목사) 4600 Stockdale AV, Bakersfield CA 93380, U. S. A. ☎ 805 -834-2969

▶ 강제철 동문 (40회 · 목사) 10900 Springfield AV, Northridge CA 91326, U. S. A. ☎ 818-832-1917

▶ 이길천 동문 (63회 · 유학중) Gescherweg 76 E301, 48161 Münster, GERMANY

▶ 김유석 동문 (67회 · 유학중) 35, Rue de l'Aude 75014 Paris, FRANCE

#### ◆주소 변경시 연락 바랍니다◆

철학과 동문회에서는 동문들의 주소가 담긴 수첩을 제작하여 지난 1월 동문들께 배포하였습니다. 내용이 잘못 되어 있거나

이후 변경된 경우,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내용이 있는 경우,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 잡습니다◆

지난 호 '주소 업데이트' 내용 중 최명관 교수의 전화번호는 (0344) 905-5020이 아니라 (0344) 905-6020이므로 바로잡습니다.

#### ◆찬조에 감사합니다◆

박근용 목사님 (35회 · 동문회 회장 / 학교법인 송실재단 이사) 과 최기만 목사님 (33회 · 동문회 부회장 / 한국의향선교회) 께서 제2회 송실 철학강좌를 위해 찬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 회 비: 회장단(12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한빛은행 461-146308-02-001  
우 체 국 012948-0048513  
(예금주) 송철동문(김기순)

#### 송실대학교 철학과

e-mail address: [philosophy@saint.soongsil.ac.kr](mailto:philosophy@saint.soongsil.ac.kr)

<http://philosophy.soongsil.ac.kr>